

'납품비리' 교장·행정실장 직위해제

광주시교육청 신설학교 기자재 구입 경쟁입찰기로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S중 기자재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 학교 박도(59) 교장과 윤도(51) 행정실장 등 관련자 2명을 직위해제 했다.

또 신설학교 기자재 구입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구매하는 등 납품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시 교육청은 29일 감사결과 중간 발표를 통해 "박 교장과 윤 실장이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각각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학교장 신분임에도 학사 관리에 소홀한 점과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 윤 실장은 학교장 결재 없이 과확실·기술실 비품 구입비 2천700만원을 지출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직위해제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 교육청은 또 윤 실장의 경우 학교장 결재 없이 비품 구입비를 지출한 점이 드러나는데 본인 스스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이 든 소평봉투를 받아 박 교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뇌물 중죄 혐의가 명백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박 교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상황 및 자체 조사 결과에 따

라 중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S중 교장으로는 김원익 교육과정 기획 담당장학관이, 행정실장으로는 박영호 서부교육청 학사담당관이 각각 겸임 발령됐다.

시 교육청은 또 신설학교 개교 사업비 집행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앞으로 각종 비품 규격과 사양서를 해당 학교 측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조무원 등을 발령할 때에는 청렴도와 개인의 능력 및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배치하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시내버스 파업엔 전세버스 투입

광주시 비상대책 마련

광주시는 29일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전세버스 500대로 시민들을 수송하기로 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노조가 당초 예고대로 9월1일 새벽 4시 파업에 돌입하면 전세버스 500대를 65개 노선에 투입한다. 또 자가용 승용차 유상 운송허가와 함께 8천276대의 택시에 대한 부제도 풀게 된다. 13편 52량의 지하철을 증회 운영하고, 9개 노선 50대의 마을버스도 노선 연장과 함께 운행 횟수를 늘린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 1천100여 명을 시내버스 기·종점에 투입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내버스 노조는 29~30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무더위 안녕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8월 30일
(윤 7월 7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22~28℃
대전	흐리고 비	23~28℃
대구	흐리고 비	24~27℃
부산	흐리고 비	22~27℃
서울	흐리고 비	22~27℃
인천	흐리고 비	22~29℃
안동	흐리고 비	22~27℃
충주	흐리고 비	22~28℃
청주	흐리고 비	21~27℃
강릉	흐리고 비	22~29℃
포항	흐리고 비	22~28℃
울릉도	흐리고 비	22~29℃
독도	비온뒤 맑	23~29℃
제주	비온뒤 맑	22~2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5:27 썰물 < 10:44
여수 밀물 < 12:27 썰물 < 18:25

▲해돋이 06:03 ▲해질 19:03 ▲달돋이 11:48 ▲달질 21:59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목)	9/1(금)	2(토)	3(일)	4(월)	5(화)
날씨						
최저/최고	21/27	22/28	22/29	22/30	21/30	20/29

남해안 적조 소멸

남해안 일대 바다에서 발생해 빠르게 확산되던 고밀도의 유해적조가 발생 22일 만에 소멸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일 고흥 노도와 여수시 가막만 해역에서 처음 발생해 울산 연안과 남해도 주변 바다까지 빠르게 번졌던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소멸해 29일 오후 6시를 기해 남해안에 내렸던 적조주의보를 해제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남해안 적조발령해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유

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했다."

이로써 올해 적조는 지속기간이 22일로 최단기간(예년 평균 43.4일)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장마에 이은 고수온 현상과 강한 수온약층의 지속, 쿠로시오 해류의 외해측 분포 등의 원인으로 적조가 쉽게 확산되거나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한계 드러낸 감사

광주 S중 기자재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중간 발표는 수사권한이 없는 교육청 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부터 박 교장과 윤 행정실장에 대해 각각 조사를 벌였으나 '실체적 진실'은 아예 밝혀내지 못했다.

우선 리베이트 수수 목록 작성 경위 조사와 관련, 박 교장과 윤 실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시 교육청은 중간 발표를 통해 "박 교장의 경우 '지금까지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자 행정실장이 쪽지를 적어 전해왔다'고 진술했고, 윤 실장은 '교장이 예산 집행 예정액이라면서 불러준 내용을 적었으며 리베이트 목록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교장과 윤 실장이 당초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시 교육청은 또 윤 실장이 '납품업체

교장-행정실장 엇갈린 진술만 확인 '리베이트 목록' '돈 봉투' 진실 못밝혀

관계자로부터 돈이 든 소평봉투를 받아 박 교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 교장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으며 행정실장이 협박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말했고, 윤 실장은 '박 교장에게 전달했다가 1개월이 지나 돌려주면서 교장이 오해할까봐 업자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사실상 파악에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박 교장이 '윤영월 광주시부교육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과 비정규직 채용,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이날 감사결과와 중간 발표를 한 이영찬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납품비리이며, (윤

교육장의) 인사 청탁 건은 본론에서 벗어난 '겉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 중인 '깎자기'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최화룡 시 교육청 감사공모담당관은 이와 관련 "이날 발표는 말 그대로 감사결과와 중간 발표에 불과하다"며 "현재 박 교장과 윤 실장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담당관은 또 "잘못이 명백하다"는 윤 실장에 대한 징계를 마치는 대로 박 교장이 주장하는 인사청탁에 연루된 윤 교육장 등 서부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미국 가는 나주배

나주시 금천면 나주배농협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햇배 선과 작업이 한창이다. 황금배와 신고배의 올해 수출 물량은 미국·대만·캐나다 등 3천여이며, 산지가격은 10kg 기준 2만원 내외. 나주지역 3천200여 농가는 매년 2천950여ha에서 7만여의 배를 수확하고 있으나, 올해는 장마·고온으로 10%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로써 올해 적조는 지속기간이 22일로 최단기간(예년 평균 43.4일)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장마에 이은 고수온 현상과 강한 수온약층의 지속, 쿠로시오 해류의 외해측 분포 등의 원인으로 적조가 쉽게 확산되거나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오늘 최고 80mm 비...남해안 호우예비특보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을을 부르는 반가운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광주·전남 대부분은 20~60mm, 남해안 지역은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린다"고 29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여수·완도·해남 등 남해안 지역에 30일 오전을 기해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번 비는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낮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남해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날 밤 늦게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남해안 일대는 31일 오전쯤 끝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의 정석' 발행 40년

3,700만권 팔린 '베스트 참고서'

성지출판사의 '수학의 정석'(사진)참고서 시리즈가 31일로 발행 40주년을 맞는다.

자립형 사립고인 전북 전주의 상산고 설립자이기도 한 저자 홍성대씨는 당시 27세의 나이인 1963년부터 '수학의 정석' 집필 작업을 시작, 1966년 8월31일 '수학의 정석' 참고서를 선보이게 됐다.

당시 기존 참고서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좋은 수학문제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 외국서적 판매점을 뒤졌고 일본·미국·프랑스의 수학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주력했다. 홍 씨의 이런 노력으로 출간 첫 해 3만5천여권이 팔리는 등 매년 판매 부수가 급증하면서 현재까지 모두 3천700만권이 팔린 것으로 출판사는 추정하고 있다.

'수학의 정석'이 '베스트 셀러'가 된 이유로 ▲수학의 기본과 원리를 논리성있게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했고 ▲출제 가능한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뤘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이면 혼자서도 능히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출판사 측은 꼽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감 선거 10월23일 실시 확정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10월23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10월25일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9월27일 선거일 공고·통지 ▲10월13일 후보자등록접수, 소견발표회 일시 및 장소 공고·통지 ▲10월19일 선거인명부 확정·보고 등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동네병원서도 무료 예방접종

내년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보건소 뿐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B형 간염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중노동당 현안조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부터 11종의 전염병에 대한 7종의 예방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료 접종대상 전염병과 예방백신은 결핵(BCG), B형 간염(HepB), 폴리오(IPV),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 뇌염(사백신), 수두(Var) 등이다. 이를 통해 약 45만8천원 정도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현재 70% 안팎에 그친 우리나라 예방접종률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경영지도사 과정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기회

수업기간: 2006. 09. 11 ~ 2007. 01. 11

수강료: 2,200,000원 (11회 수업료 포함)

문의: 223-2255, 011-611-9010

스피치 리더십 과정

말의 힘으로 리더십 발휘

수업기간: 2006. 09. 11 ~ 2007. 01. 11

수강료: 2,200,000원 (11회 수업료 포함)

문의: 223-2255, 011-611-9010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클릭한방으로

www.hanbpGAGU.com

한복가구 2082225-4100

사무용의자 전문상업체

토치 광주총판

사무용의자, 사무용의자, 사무용의자

문의: 223-2255, 011-611-9010